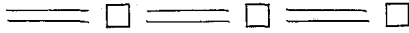


□□□□ □□□□ 공동방제의 문제점과



□□□□ □□□□ 앞으로의 개선 방향

농수산부 식물방역과

진 용 태

우리는 제한된 農土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食糧을 생산하기 위해서 多角的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結果로 77년도에는 신품종개발과 함께 綠色革命을 성취하여 우리의 숙원이었던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한때뿐 全天候品種으로 믿었던 신품종에 예기치 못했던 新苗系稻熱病菌의 출현으로 인하여 78년도 魯豐피해와 더불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병충해방제의 중요성을 농민

은 물론 全國民에게 실감토록 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은 가일층 병충해로 인한 被害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만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병충해의 피해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農作物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病虫害가 발생했을 경우, 그저 農藥만 살포하면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병충해 발생의 요인

◇ 공동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 되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된다.

地力이 떨어 진 논밭에는 客土를 실시하고 珪산질 비료도 施用하고 퇴비를 증산하며 化學肥料의 連用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 砂質畚이나 병충해 발생 常習지구에 대하여는 병에 강한 품종을 가려 재배하는 것이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事前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발생되어 防除措置를 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부분적인 개별방제는 효과가 적으므로 한 필지도 빠짐없이 병충해가 발생한 전체면적을 일시에 共同防除해야만 防除效果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點은 農民이나 政府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農村에서 이를 實行하려면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동심을 길러 나가면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도, 일부 지역의 共同防除團은 착실하게 이를 運營活用하여, 공동방제단 관할면적 이외에도 用役防除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공동방제단을 運營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共同防除의 利點을 고려하여 共同防除團에 대하여는 無利子 외상으로 필요한 農藥을 공급하였고, 일부 공동방제단에 대하여는 고성능 방제기구나 방독면등을 무상 또는 보조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방제단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共同防除의 問題點

① 耕地整理

공동방제를 실시하려면 무엇보다도 농경지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畚인근에 나무를 심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논근방에 심어져 있는 나무그늘로 인하여 벼의 생장에도 지장을 줄 뿐더러 또한 벼의 생장이 연약하게 됨에 따라서 병발생의 근원이 됨은 물론 고성능 방제기에 의한 방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지정리면적 320千 ha 중, 60年度以前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大部分 農路幅이 기준치 4m에 미달되어 경운기나 트랙터등

◇ 공동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의 활용이 어려우며 공동방제작업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共同防除團

현재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방제 단수는 22,680개에 달하고 있다.

※ 共同防除團組織 現況

계	行政	農協	農組
22,680 個	10,469	5,468	6,743

그러나 대부분(90%정도)의 방제단은 방제기구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로서 다만 무이자로 외상농약공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방제단의 명칭만 갖고 있는 공동방제단이 허다하며, 당초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농약을 공동으로 외상 공급받아 農家別로 배부해서 個別防除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발견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방제단은 과감히 정비하고 명실공히 공동방제단으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갖춘, 공동방제단을 中心으로 重點育成擴大하여야 할것이다.

③ 航空防除

時刻을 다투는 급격한 병충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69년도부터 航空防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헬리콥터사용용역비('80 ha당6,000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농약대는 수혜자 부담으로 매년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貸 정산과정에서 농민과 행정기관간의 물의가 가끔 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필지 중에서 가장 자리에 있는 논·밭의 소유농민이 자기(畓)에는 農藥이 제대로 살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농약대금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는 항공방제를 기피하기도 하는데 매년 해를 거듭 할 수록 항공방제의 기술도 향상되고 농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실태로 금년도에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소재 농장소유자 이정환씨는 자력으로 항공기 용역비와 농약대로 200 만원을 부담하여 인근畓 200ha 에 대하여 공동항공방제를 실시하여, 공동방제의 혜택을 입은 인근 부락농민들로 부터 열렬한 처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민간안으로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최초의 한국농업인으로서 기억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항공방제에는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한된 항공기(아세아항공: 11대 합동통신: 1대)로 병충해 발생시기

◇ 공동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가 비슷한 진국을 동시에 방제하기란 불가능하며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렇지만 항공방제사업이 병충해 만연

시기에만 필요한 제절사업이기 때문에 1년중 가동일수가 적어 기업수지에서 볼때 항공기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年度別 航空 防除 實績

구분 년도	事 業 量			支 援 額		
	計 劃	實 績	比率	國 庫	地 方 費	計
	ha	ha	%	千원	千원	千원
69	5,000	5,017	100	6,673	—	6,673
70	9,750	7,923	81	12,360	—	12,360
71	28,930	28,810	100	49,841	—	49,841
72	50,000	49,500	79	89,099	—	89,099
73	70,000	70,467	101	71,352	29,906	101,258
74	77,800	77,811	100	151,193	37,930	189,123
75	80,000	78,570	98	157,140	47,142	204,282
76	142,324	142,324	100	370,042	364,904	734,946
77	108,000	104,683	97	496,762	527,792	1,024,554
78	117,230	107,982	92	499,070	494,969	994,039
79	70,055	74,491	106	181,526	194,406	375,932
80	100,000	85,589	86	—	—	—

※ 앞으로의 共同防除 方向

현재 우리 농촌은 노동력 부족과 농민들의 農藥撒布 기피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농약 살포 회수의 증가로 영농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은 농작물의 병충해방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태이다.

지금까지의 영농은 병충해 방제

만이 아니고 품종선택등 거의 대부분이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農民 스스로가 연구하고 제반 기술적인 문제등을 농민의 의사로 하고 과학적인 운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自律性 있는 영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강제 아닌 강제성을 띤 관 주도형 영농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농민이 정부의 영농정책

을 믿지 않는 요인을 招來하였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조장한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개발도상국형의 영농정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보면 농사 짓는 일은 농민의 일로서 농민주도형의 영농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충해방제도 농민스스로가 옳은 방제법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정부는 유도하고 권장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지도기관을 이용한 시범포의 활용이 바람직하며,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농민이 원할때 영농자 재공급을 원활히 해결 것이며, 기타 영농상의 문제점등 원인을 분석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는 등의 합리적인 영농정책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공동방제단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편중적 혜택을 지양하고 읍면당 능력 있는 방제단을 정예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공동방제체제를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유관기관 관계 직원들의 방제에 따른 농민에 대한 간섭도 지양

해야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종래의 하향식 방제계획을 지양하고 농민의 희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상향식 방제계획을 택하고 이에 따라, 농약도 농민의 주문에 의해 농민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농약을 공급해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무리없고 농민의 환영을 받는 병충해 방제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영농정책을 정부가 제시한다 해도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린다.

해...외...토...픽

日本도 벼농사 凶作

일본 농수산성은 24일 지난 7월 이후 계속된 저온등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일본의 벼 야채 과일 등 급년도 농작물작황은 전 경지면적의 53%로 2백61만3천ha가 피해를 입어 전후사상 최고인 6천9백19억엔(약 2조원)의 피해를 냈다고 최종 집계 발표했다.

농수산성은 당초 지난 9월15일 기준으로 농산물피해액을 5천6백79억엔으로 발표할바 있으나 9월 하순에도 저온이 계속되고 도열병이 만연되어 1천1백억엔의 피해가 늘어 났다고 발표했다.